



3면

"K뉴딜 1번지 전북 만들 것"
민주 전북도당, 비전 제시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1년 2월 2일 화요일 (음 12월 21일) 제2710호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빌 6번지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도, 설 명절 종합대책 마련 코로나19 차단 특별방역 최우선

'고향방문 자제' 기본원칙 4대 전략 14개 과제 포함

전북도가 이번 설 연휴 동안 도민의 안전과 청정 전복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19 특별방역을 최우선으로 하는 '설 명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지속 시행과 함께 '고향방문 자제'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특별방역 ▲안전예방 ▲민생·경제 ▲홍보·점검 등 4대 전략, 14개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전북도는 설 명절 기간 중 무증상 및 경로 미확인 확진자의 전파감염과 가족단위 확산위험이 매우 높다고 보고,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특별 방역대책을 세웠다.

이와 함께 도민의 안전을 전제로 한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함께 사는 가족 제외), 온라인 차례를 권고한다.

또, 집단감염 위험시설의 사전점검 강화와 방역 및 점검을 강화한다.

아울러, 차질없는 방역관리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별진료소(28개소), 응급진료상황실, 응급의료센터 등 24시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고향방문 귀성객과 축산 관계자에 의한 AI·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재난형 가축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대책상황실(24개소) 운영, 방역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설명절 대비 종합상황실(7개반 180명), 24시간 재난상황실(5명) 등 비상근무를 강화해 민약의 사태에 신속하게 대비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에도 총력을 다한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1월말까지 91%의 지급율을 보이고 있고, 이달 1

일부터 추가 확인 지급에 들어간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긴급경영안전자금도 차질없이 지원한다.

도내 법인택시기사에게 지급하는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50만원)은 2일까지 시·군에 예산교부를 완료해 설 전에 지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저소득세대와 사회복지시설에는 206백만원을 지원하고, 복지시설 205개소에 '정(精) 꾸러미' 보내기 등 비대면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함께 나눔을 추진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교통수단 증회 운영, 문화체육관광시설 사전예약 등을 통해 사람의 밀집을 분산시키는 사회적 거리 두기 안전예방 대책도 추진한다.

도내 봉안시설 및 묘지에 대해서는 온라인 추모를 유도한다.

제례실과 유가족 휴게실이 이달 말까지 폐쇄되고, 실내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온라인 성묘 서비스와 함께 명절기간 전후로 이달 말까지 실내 봉안시설 사전예약제가 운영된다.

임실호국원은 오는 11일부터 나흘간 운영을 중단한다. 다만, 임실호국원 의전단이 헌화 및 참배 후 유족에게 해당 사진을 전송한다.

한편, 전북도는 설 전부터 모든 도민이 고향방문 자제와 특별 방역대책에 동참하도록 방역 메시지를 강력하게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송하진 지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북도민회 임원 및 향우에게 지역별 도민회의 SNS를 통해 서한문을 전달, 다가오는 설에도 고향가는 발길을 멈추고 코로나 없는 전북에 함께해줄 것을 호소했다.

최훈 행정부지사는 "5인 이상 모임금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는 것만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며 "이번 설 명절은 자신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김승수 전주시장과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이사(사진 오른쪽부터 네번째)를 비롯한 전주 언론사 대표들이 1일 전북 전주시 전주남부시장 청년몰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지역 언론계도 '전주형 착한 선결제' 동참

시, 조봉성 전주매일 대표 등 지역 언론사 대표들과 캠페인 동참 협약

전주지역 언론계가 한마음으로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동참한다.

전주시는 1일 남부시장 청년몰 2층 광장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손성배 KBS 전주 편성제작국장, 송기원 전주MBC 사장, 한명규 JTV전주 방송 사장, 문영기 전북CBS 대표, 이봉준 연합뉴스 전북취재본부장, 윤석일 뉴시스 전북본부장, 윤석정 전북일보 사장, 임환 전북도민일보 사장, 박명규 새전북신문 대표이사, 문봉호 전민일보 사장, 조봉성 전주매

일 대표, 신영배 전주일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을 통해 주요 방송·통신사와 신문사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골목상권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언론사 대표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달 20일 시작한 '전주형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10만~30만 원을 미리 결제하고 나중에 쓰는 착한 소비운동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전주형 착한 캠페인 홈페이지(good.jeonju.go.kr) 집계 결과 1일 오전 8시까지 누적인원 3,600여 명이 참여했다. 사용처는 동네마트부터 자동차 수리점, 이·미용업체, 음식점 등으로 다양하다.

시는 그간 10%의 캐시백이 지급돼 왔던 폐지카드(전주사랑상품권) 해

택이 한시적으로 20%까지 대폭 늘어난 점이 시민들의 캠페인 참여가 늘어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시는 지난달 29일 동참을 선언한 민간단체와 동별 자생단체 회원 9,300여 명이 릴레이로 참여하게 되면 성과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과 지역업자를 돕기 위해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동참해주신 언론계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공동체 정신과 강력한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도, 도내 전역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지난달 말 고비사막서 발원된 황사 영향... '실외활동 자제해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1일 오후 3시 서부권역을 시작으로 4시 중부권역, 6시 동부권역에 주의보가 발령되면서 도내 전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PM10) 농도도 증가하여 1일 18시 서

부권역, 중부권역에 미세먼지(PM10) 주의보가 발령됐다.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와 잔류 황사의 대기 정체를 지난달 30일에도 전북 서부권역에 미세먼지(PM10) 주의보가 발령된 바 있다.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

리아는 지난달 31일 고비사막에서 황사가 발원하여 북서기류를 타고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나뭇을 예보했으며 현재 전북지역 미세먼지(PM10)농도도 점차 상승하고 있다.

이로써, 올해 주의보 발령은 초미세먼지(PM2.5) 5회, 미세먼지(PM10) 3회를 기록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심장 질환자 같은 민감군은 물론 일반인도 실외활동이나 과격한 운동을 자제해야 한다.

박정숙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연구부장은 "유치원과 학교에서는 실외 수업을 자제 및 금지하고 실외활동 때에는 마스크나 보호안경을 착용해야 한다"면서 차량운행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좀 더 **나**갓게,
좀 더 **가**까이!

민생을 살피고, 군민에게 좀 더 낫게·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